

궁극의 지침

| 용타스님 |

유한을 뛰어넘어 무한에 이르는 마음속 통로로 돈망을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075. 마음공부의 향기

뭔가 마음공부라는 것을 하다가 보면 그 마음공부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올 것임은 당연하다.

현재 돈망파지자頓忘把持者가 25명이요, 준파지자準把持者가 30명 정도, 그리해서 돈망정준파지자頓忘正準把持者가 55명 정도이다. 돈망을 파지하거나 거의 파지한 분들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카톡방에 돈망선방이라는 모임 공간을 만들어서 돈망 관행을 글로 써서 나누고 있다. 아울러 동사섭 지도자가 33명인데 이들이 돈망정준파지자와 함께 동사섭공덕이라는 카톡방에서 공부해온 소감들을 나누는데 감동적인 글들이 많다. 앞에서 Before and After라는 주제로 나의 수행 공덕을 조금 나누었는데 나와 수행 방편을 함께 하고 있는 수련생들의 그것을 조금 나누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동사섭의 공덕 : [수련생 A]

동사섭의 공덕을 써보라 하는 상황이지만 동사섭이 나에게 일으킨 것은 ‘공덕’이라는 암전한 말로는 충분히 표현할 수 없다. 동사섭이 나에게 일으킨 것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이었다. 동사섭은 세계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완전히 180도 회전시켜 놓았으니 말이다.

나는 동사섭을 만나 개념의 세계에서 개념이전의 자리로, 인간의 상식에서 우주의 상식으로, 말 그대로 내동댕이쳐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나는 동사섭을 만나 나 있음에서 나 없음으로, 과거현재미래에서 지금여기로, 유한자에서 무한자로, 개체에서 전체로, 불만에서 본래 온전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방어에서 수용으로, 그 눈을 갈아 끼웠다.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쉬는 법을 알게 되었다. 동사섭을

알기 전 세상은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좋은 것을 구하기 위해 끝없이 전진공공 전진해야 했다. 그러나 이 세계가 본래 공손한 개념以前을 이해하였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빠져나올 도리가 없이 그 속에서 맴돌고 있던 가치의 부대낌이라는 폐쇄구조가 단번에 깨져나가고 나는 본래해탈의 자리에서 쉬고 또 쉬었다.

동사섭은 나에게 어떤 이치를 이해하게 하여 정견을 정립하고 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사유思惟라는 방편을 알게 하였다. 사유라는 능력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거의 누구나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 사유라는 것이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데 더없이 탁월하고 보편타당한 도구이며 또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자기 설득력을 지녔음을 놀라 깨어나듯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동사섭이 나에게 베풀어준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커다란 은혜이다.

언제나 갈피를 모르고 뒤숭숭하던 의식세계가 깔끔하게 정리되었다. 오요五要 가치관이라는 인생의 나침반 내지 지도를 손에 넣었다.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지극히 비관적인 관점으로 살아온 내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관점으로 전환됨으로써 삶이 밝은 희망의 장場으로 바뀌게 되었다. 또한 동사섭은 인간이란 본래 영적인 존재, 성장해가는 존재임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이 우주 본래의 라이프 스타일임을 이해하게 되어 이타적인 삶 혹은 헌신적인 삶이라는 것이 압박감을 주는 도덕적 당위가 아닌 행복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으로 스며온다.

동사섭의 여러 가르침들로 확실한 자기관리법을 갖게 되었다. 인생의 후반기에 일생에서 가장 의미있고 소중한 인연을 만났다. 이력저력 살다가 무덤으로 직행할 나이에 인생에서 참으로 근원적일 수 있는 열정이 더욱 피어나고 있다.

동사섭에 올 때만 해도 수심修心에만 관심이 있던 내가 화합和合에

새로 눈을 뜨게 되었다. 정말이지 공동체 속에 태어나는 존재가 어찌 화합을 도외시하고 행복을 바랄 수 있겠는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하는 까닭도 이해하였다. ‘나도 당신과 같은 기질로 태어나 당신과 같은 환경에서, 당신과 같은 생육사(生育史)를 밟으며 살게 되었다면.....’ 하게 되면 세상에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되었다. 자신의 느낌과 곧장 동일시되던 습癖에서 벗어나 그 느낌들을 성찰하는 힘을 기르게 되었다. 묵고 묵어서 철감을 두른 듯 한 습癖도 사유(思惟)의 힘으로 성찰해보면 그 껍질이 혹은 알팍해지고 혹은 부드러워져 사라져 감을 알게 된다. 나아가 이제는 천하의 모든 존재의 행복과 해탈을 위해 나를 바치리라 하는 대원(大願)이 도덕적 요구가 아닌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필수적 덕목(德目)임을 절감한다.

* * *

[수련생 B]

- 지금 바로 부처한다.

- 그냥 있다.

개념을 내려놓습니다. 웅성거리던 사위가 고요해집니다. 가벼워지고 편안합니다. 한번도 떠난 적 없는 본래 자리에 눈뜹니다. 실체시(實體視)했던 모든 허상들이 밀려나고 사라집니다. 가볍고 한가합니다. 담담합니다.

“그냥 있다”를 관행(觀行)할 때만이 이 일물이 꿈꾸고 집착하고 고통 속에 있었음을, 오로지 내 스스로 허공에 갇힌 채 허우적대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도 떠난 적 없는 본래의 자리에 눈 뜨고 지고 한 행복을 누립니다. 환희롭고 감사합니다.

- 기초수를 그대로 수용한다.

있는 듯한 느낌들을 마주합니다. 몸의 긴장과 찌뿌둥함, 걱정과 조급함 등, 수용하면 사라지고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매번 놀랍고 신

기합니다.

평등한 마주침. 그럴 만하니 왔고 머물렀으며 사라집니다. 인과와 연기적 흐름에 순응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들고 사라지며 편안합니다. 좋습니다. 좋음마저 수용하니 답답함이 여여如如히 흐릅니다. 그 저 아미타불입니다.

- 아공법공이니 걸림 없이 그냥 깨어있는 것이 할 일 전부이다.

지금 실체시實體視하는 ‘그것’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과거의 것’의 잔상에 불과합니다. 나와 너를 포함한 우주가 흩어지고 사라집니다. 풀려나며 고요해집니다. 가볍고 편안합니다.

* * *

[수련생 C]

- 그냥 있다.

- 기초수를 그대로 수용한다.

- 아공법공이니 걸림 없이 그냥 깨어있는 것이 할 일 전부이다 : 그냥 있음은 유념하니 의식공간이 깨끗해지면서 지금여기에 깨어있는 의식만 선명히 느껴져 온다.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침예한 깨어 있음이지만 무심히 쉬고 있는 편안하고 고요한 휴식감이다. 정갈한 깨어 있음과 편안히 이완된 안정감을 바탕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니 모든 대상에 쉽게 적응되는 용해탈감을 느낀다.

- 기초수를 그대로 수용한다 : 가볍고 쾌청하다. 수관-인과관-지족관으로 더욱 가벼워진다. ‘기초수 수용.’ 의도적으로 자신의 컨디션에 주의를 기울여 느껴주고 기꺼이 수용하는 기초수 수용이라는 방편은 참으로 큰 의미임을 거듭 깨닫는다. 기초수 수용의 이치가 이해되어 있지 않다면 ‘더 좋았으면’ 하는 무의식적인 갈구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다

- 아공법공이니 걸림 없이 그냥 깨어있는 것이 할 일 전부이다 : 연

기고공, 삼시불가득공, 공의 이치를 사유음미하며 더욱 깨끗한 무한감이, 더욱 온전한 그냥 있음이 되어짐을 느낀다. 아공법공이 사족으로 느껴질 정도로 깨어있는 의식으로 온전한 무한감의 돈망모드가 되어짐을 느낀다.

* * *

[수련생 D]

- 지금 바로 부처한다!

- 그냥 있다 : 환상으로 내달리던 의식의 초점이 해체되고 지금 여기 그냥 깨어있는 의식으로 현전한다. 맑고 투명하다.

- 기초수를 그대로 수용한다 : 깨어있는 의식으로 심신 쪽을 살피니 모든 기초수 하나하나에 몰입되지 않고 그저 대양의 파도처럼 일어났다 사라짐이 절로 일어난다. 느낌의 파고波高들을 넓은 품으로 묵묵히 관조하니 연기緣起와 인과因果의 파노라마다. 춤사위. 삶 그 자체가 예술이다. 찬탄, 감사로 수용하니 기초수基礎受가 걸릴 것 없이 통과되어 마냥 그냥 있다.

- 아공법공이니 걸림 없이 그냥 깨어있는 것이 할 일 전부이다 : 아공법공. 수용할 누군가가 있고 수용 받을 뭔가가 있다는 전제를 싹 쓸어버린다. 그냥 깨어있을 뿐. 고요하고 성성하다. 모든 꿈이 사라지고 깨어있음의 총총함이 또렷해진다.

* * *

[수련생 E]

이번 교육에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허공을 노래하라!’입니다. 거울 님의 말씀 따라 나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네 마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그 안에 여러 가지 고통과 고민의 생각 덩어리들이 있는 것이 보이는가?”

눈을 감고 가만히 내 속을 들여다본다. 내 생각, 내 마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자. 과연 어느 정도인가... 가만가만, 천천히 바라보니, 윤곽이 살살 보이네요. 작은 공, 축구공만 한 크기의 마음 속에... 자세히 보니 까만 생각 덩어리들이 여기저기 자리 잡고 있네요.

거울 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네 마음 크기가 정말 그만 하나? 정말 크기가 그만 한지 다시 한 번 찬찬히 쳐다봐라” 거울 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조용하니 쳐다보니, 어라~ 크기가 조금씩 부풀어 커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천천히~ 큰 스테인리스 그릇만 하게~ 초등학교 운동회 때 굴리던 큰 공 크기만 해지더니 점점 속도가 붙고.....

몸에 소름이 돋고 눈물이 납니다.

내 마음 크기가 이리, 이리 클 수가 있는가~ 자꾸자꾸 커지더니, 훌쩍 지구 밖으로 퍼져 나가서 아니, 내가 달보다 더 멀리... 지구가 내 마음 크기의 1/100쯤 보입니다. 환상입니까? 거기서 딱, 멈춰 있습니다.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세상에나... 내 마음이 이리도 큰 것이네~ 이리도...

흔들흔들, 울렁울렁, 내 마음 크기가 더 커지려고 흔들립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내일 다시 커지자~

울면서 즐겁습니다.

아까 맨 처음 보았던 검은 생각덩어리들은 어디 갔을까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저~기 어디 먼 구석에 존재는 하겠지요. 그러나 별 걱정 없네요. 그저 이 큰 공간, 허공 속에서 그냥 시간이 가면 녹아버릴 것이니까요...

기쁨의 눈물이 또 흐릅니다. 다시 반복하여 명상하다 보면 눈물이 미소로 되는 날이 꼭 오겠지요. (중략)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수련생 E는 5박 6일 일반과정 한 번을 마치면서 제출한 소감문이고 다른 A부터 D까지의 분들은 지도자 과정까지를 마친 분들이요, 돈망을 파지한 분들이다. 늘 느끼는 바이지만 수련을 통해서 그나마 의식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사례들이다.

076. 궁극窮極의 지침指針 1

J 거사님이 나에게 큰 선물을 하셨다. “큰스님, 동사섭의 최대 강점은 돈망頓忘이라는 궁극의 지침을 가르침으로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J 거사님이 말씀해주셨다. 실은 내 스스로도 모름지기 영성문화靈性文化라면 무한無限을 보장해주는 궁극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온 터였다. 드러내놓고 마구 큰소리 내지는 않았으나 동사섭 영성문화에서 궁극의 지침 차원에서 돈망頓忘을 안내하는 일에 대한 긍지감을 지긋이 가지고 있는 터였기에 J 거사님은 그 부분을 알아주는 지음知音자로 내 의식에 각인되었다. 이에 내 영성의 역사에서 궁극의 지침을 정립하게 된 기연機緣 몇 자락을 정리해보는 것도 우리 미내사 독자들에게 어떤 법보시法布施(진리의 선물)가 되지 않을까 한다.

대학 2년 때 색즉시공色卽是空이 풀리면서 내 주관적인 생각이겠지만 궁극의 자리를 분명 보았고 이어서 대학 3년에 삭발위승削髮爲僧하여 스님이 되었다. 그러나 가치관 정립 차원에서 혼란을 극복하지 못했고, 젊은 혈기에서 뿔어져 나온 업의 회오리를 이겨내지도 못했다. 자연히 세상의 인파 속에 평이하게 매몰되어 살아갔다.

고등학교 독일어 교사로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다. 다행히 스스로가

스님이라는 정체성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고 있었고 교직에 있으면서 대학원에 입학하여 [불교佛敎의 선禪에 관한 연구]로 석사 논문을 쓴 연연으로 의식의 바다에 궁극적인 해탈에 대한 그리움이 그렇게 소극적이지만은 않게 흐르고 있었다. 세간 나이 34세에 접어들었다. 평소에 문득문득 밀어 오르던 한 생각이 강렬한 에너지로 솟아오르곤 했다. ‘인생이 100학년을 완성하는 과정이라면 나는 고작 17학년(고1)에서 19학년(고3)까지를 담당하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99학년을 넘어 100학년이 되고 세상 사람을 100학년 레벨로 끌어올리는 일이어야 하지 않겠는가!’하는 독백이 이미지와 함께 뿜어 오르곤 했다.

34세의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2월말에 사표를 냈다. 결단 성공! 마침 스승이신 청화선사淸華禪師께서 광주 추강사秋江寺에 머물고 계셨다. 스승으로부터 중수계重受戒(중이 되었다가 속되했던 사람이 다시 계를 받는 것)를 받았다. 본격적인 참선수행의 길에 들어섰다.

명득정明得定, 명증정明增定, 인순정印順定, 무간정無間定, 초선初禪, 이선二禪, 삼선三禪, 사선四禪, 공무변처정空無邊處定, 식무변처정識無邊處定, 무소유처정無所有處定, 비상비비상처정非想非非想處定, 멸진정滅盡定 등이 내가 나아가야 하는 이정표가 되었다. 스승이 선정禪定을 중시하는 가르침을 퍼셨다. 깨달음이란 선정禪定의 깊이가 멸진정滅盡定 경지에까지 이른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선정이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되는듯하다가 잘 안 되는 것이 선정이었다. 좌절, 좌절, 좌절! 선정의 깊이가 언제 멸진정에 이를 것인가? 거듭되는 좌절로 나는 행복하지 못했다.

내 나이 47세, 전남 곡성군에 있는 태안사泰安寺에서 스승이신 청화선사 님을 모시고 50여명의 스님들이 삼년결사三年結社를 하고 있었다.

그해 여름 어느 날, 낮 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하다가 나무그늘 아래 바위 위에 앉아 하늘과 숲을 바라보면서 쉬고 있었다. 문득 스스로에게 한 물음이 일어났다. ‘누군가가 나에게 “용타스님, 당신 20여년의 수도생활에 내놓을 만한 속살림이 있다면 내놓아 보세요?”라고 질문한다면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었다. 순간 아찔한 막막함이 내 의식을 감쌌으나 이윽고 ‘이거야!’하고 내놓을 수 있는 살림 한 자락이 영롱玲瓏한 의식意識으로 현전現前했다. 이 체험은 내 종교적 체험 중 최정점最頂點의 것이다. 그 당시에도 했던 말이지만, 나는 이 체험에 대해 ‘이제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다. 구도求道가 하나의 행각行脚이라면 나는 종착점에 이르렀다. 제자리 뛰기가 있을 뿐 더 이상 향하여 뿔 곳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곤 했다.

인식의 전환! 대학시절 색즉시공色卽是空을 해결하였던 깨달음도 인식의 전환이었는데, 87년 여름 태안사에서 깨달음도 또한 인식의 전환이라는 것을 거듭 알게 되었다. 졸저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의 <깨어 있음>이라는 글에 이렇게 써 있다.

‘무엇인가에 깨어 있음’이 깨어 있기이다. 대상으로서의 그 ‘무엇인가’가 사라지고, ‘깨어 있음’ 자체가 깨어 있기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이 마지막 깨어 있음이요, 가장 본질적인 구경究竟의 깨어 있음이다. 즉, 잠시라도 육근六根에 들어오는 다양한 객체(대상·六境)에 주의注意가 가는 심리과정心理過程에서 주의를 몰수沒收해 버리는 심리과정으로 전환해 보라. 다시 말해서, 대상을 보는 능동적 행위를 그치고 대상이 의식되기는 할지라도 대상에 에너지(관심·주의)가 가지 않는 수동적 행위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때 대상의 존재는 개념성을 잃고 오직

어떤 ‘깨어 있음성’만 체험된다. 이것이 가장 순수하게 깨어 있음이요, 각성점두覺性點頭의 전부이다. 이 각성점두가 되었으면 그 명정성明澄性和 지속성持續性を 확장시키는 일이 있을 뿐이다.

깨달음이 인식의 전환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된 마지막 큰 사건이 있었다. 전주에 있는 금산사에서 개설한 화엄불교대학에서 석가모니의 생애와 사상을 강의하면서 일어난 사건이다. 하루는 도법스님께서 백장암으로 나를 방문하셨다. 전주에 불교대학을 개설했으니 강의를 좀 해주어야겠다는 것이다. 그때만 해도 이것이 내 인생에서 획재적인 사건이 될 줄은 몰랐다. 석존 생애를 공부하다보면 석존 생애 중 제일 큰 주제는 무엇일까 궁금하게 된다. 무엇일까? 석존생애에서 가장 힘주어 강조해야 할 점은? 관점의 문제이겠지만 나는 보리수하菩提樹下的 대각大覺을 든다. 열댓 번의 석존생애 강의를 하면서 즐기치게 화두가 되었던 것은 보리수하 대각의 실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다. 여러 차례 강의를 해가던 중 점점 그 실상이 잡혀왔다. 확연한 자신감으로 떠오른 답은 [사유思惟를 통한 이해理解]였다. 무엇을 사유하셨을까? 사람은 평생 무수히 ‘나!...’, ‘나!...’하고 사는데 진정 그 ‘나’는 무엇인가를 사유(사색思索)하셨던 것이다. 사유 결과 그 답은 [‘나’란 어떤 구획되어 있는 덩어리(실체)가 아니라 구획될 수 없는 연기緣起적 존재이다.]이다. 이 간단한 명제를 가만히 음미하고 있노라면 확연한 해탈이 경험됨을 알 수 있다. 즉 존재하는 것들의 현상을, 현상에만 묶여있지 않고 그 본질을 모색해 들어가면 그 어떤 존재도 연기緣起 아님이 없다는 것을 통찰하면서 어떤 실체에 걸려있던 마음이 걸림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곧 무애無碍요 해탈解脫이다.



[사유를 통한 연기의 이해] 역시 [인식의 전환]임이 확연해지면서 23세 때의 색즉시공, 47세 때의 각성점두覺性點頭, 53~4세 무렵의 연기緣起-무아無我-해탈解脫, 나아가 이 마음이 이대로 부처요 두두물물頭頭物物(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부처 아님이 없다는 선불교禪佛敎의 가르침 등이 서로 상응하면서 ‘인식의 전환이 해탈’이라는 해오주의解悟主義가풍家風이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보리수하 대각의 실상이 확연해진 점, 반야공般若空을 해결한 점, 세친의 유식唯識의 요체가 확연해진 점, 달마의 즉심즉불卽心卽佛이 확연해진 점 등이 해오解悟 차원으로 확연하게 정리된 것은 내 인생에서 참으로 행운이라 할 만한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이 지면을 통해 이러한 해오주의 내용들이 더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차분히 다룰 수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진다.

077. 궁극窮極의 지침指針 2

어제는 원광대학교에서 개최된 ‘함석헌 사상과 오늘의 한국사회’라는 제목의 세미나 장에 방청객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문학평론가 윤영천 님의 ‘함석헌의 시 - 동정과 치유’라는 발제의 글 한 대목에서 전율에 가까운 감동을 받았다. 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 대목의 글을 음미해봄으로써 독자들도 궁극의 가르침에 눈뜬다는 것에 대한 어떤 영감을 받을지 모르겠다.

영생을 위하여

고통 받는 민중들의
놀리는 소리, 잘리는 소리,
부러지는 소리, 찢어지는 소리,
높고 처장(悽愴)한 현실의 소리에
예민하게 감응하려는 함석헌으로 하여금
끝내 ‘비판적 지식인, 사회주의 혁명가’ 같은
“현실의 전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라질 듯 연약하고
막연한 정체불명의 실개미 소리 같은,
그러나 온유하게, 겸손하게, 끈질기게, 쉬지 않고,
간절히, 애원히, 심절히 호소하는 소리,
외부의 어떠한 소리급쇠(音叉)도
공명하고야 마지않을 또 다른 소리이다.
놀러도 결코 멈추지 않고 힘 있게 솟구치는
내면의 엄중한 도덕명령 같은 근원적인 “영원의 갈망”,
저 “생명의 오저(奧底)에서 울리어 나온 음향”,
그것을 함석헌은 가까스로 “영생을 위하여”라고 번역한다.

윤영천 님은 함석헌 님을 해석하기를 “현실의 전사로 나아가지 못하고 영생을 위하여 엄중한 도덕명령 같은, 생명의 오저(奧底)에서 울리어 나온 음향에 따랐다.”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기는 함석헌 님은 현실의 전사였다. 현실의 전사이면서도 인간 일반이 봉착해 있는 실존적 유한의 벽을 뛰어넘어 무한의 저편으로 승화하고자, 곧 영생을 얻고자, 줄

기찬 구도求道の 길을 걸으셨던 것 같다. 불교의 무아無我와 공리空理 내지 금강경의 파상破相 사상을 천착하고, 무엇보다 노장老莊 사상에 있어서는 학당을 열어 강의를 할 정도로 조예造詣가 깊으셨다고 볼 때, 윤영천 님이 함석헌 님 속에 도도히 흐르고 있었던 구도求道에의 갈양심渴仰心 진단해 낸 것은 지당하게 보인다.

어찌 함석헌의 현실 전사 여하가 문제이겠는가? 사람의 마음에 유한의 벽을 뛰어넘어 무한 정토에 이를 수 있는 통로가 뻗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한의 늪에 중독되어 늪에서 빠져나올 김새를 전혀 보이지 않는 가까운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들을 어찌해야 하느냐는 상황 속에 내가 있고 네가 있으니 말이다.

돈망이라는 깨달음, 깨닫기 전에는 깨달음(선오先悟)이 99% 의미로 중요하지만 깨달은 다음에는 다시 무량겁 과거세부터 덕지덕지 쌓아 온 업장 녹이기 위해 다시 후수後修가 99%적으로 필요한 것이 수행修行의 길 아니던가! 내 갈 길도 창창蒼蒼히 먼데 누구를 일러 안타깝다 하겠는가 하는 것이 또한 솔직한 내 마음이다.(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용타 스님** | 1964년 청화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6년부터 1974년까지 고등학교 독일어교사로 교단에 섰으며, 1974년부터 1983년까지 20안거를 성만했다. 미국 삼보사 회주, 성륜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재단법인 행복마을 이사장으로 1980년도부터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 해탈을 위하여 '동사섭'이라는 마음공부 프로그램으로 32년 동안 수련회를 개최해왔다. 저서로는 《공을 깨닫는 27가지 길》, 《마음 알기 · 다루기 · 나누기》, 《10분 해탈》 등이 있다.

(재) 행복마을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

저자 송탁 | 출판사 대원사 | 정가 12000원

용타 스님의 『마음 알기·다루기·나누기』, 마음 닦는 일에 대한 붓코 원경의 입문서이자 지침서다. 붓코원간지 『대중붓코』 중에 실어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행복과 행복의 조건, 생활 붓코 어떻게 할 것인가, 안의로의 산책, 명상장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10분 해탈 - 용타 스님의 생활수행 이야기

저자 송탁 | 출판사 불광 | 정가 12000원

생활도 수행이다!

용타 스님의 생활수행 이야기, 『10분 해탈』, 붓코의 근원적 가르침을 만나, 선봉교관 대령으로 현대 심리학과 상담학을 끌어들이며 『동사집(同事集)』이라는 집단수행프로그램을 만든 저자의, 『마음 알기·다루기·나누기』(대원사, 1997년)에 이은 두 번째 수행 지침서다.

이 책은 붓코 원간지 『붓코』에 3년간 연재해온 <생활수행 이야기>를 엮은 것이다. 매일 1면씩 10분간 읽으면서 해탈을 이두어 궁극의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동사집 수련프로그램 안내

동사집(同事集)이란, 불교의 사섭법(四攝法 : 布施攝·愛語攝·利行攝·同事攝) 중의 한 개념이다. 사섭법이란 보살이 중생을 향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베풀고(보시섭, 경우에 따라서는 자애 어린 말로 더불고(애어섭), 또는 이로운 일로 도와주고(이행섭), 나이가 그들과 최로애락을 합제하는(동사섭) 살의 태도를 말한다. 본 동사집수련회에서는, 동사섭의 개념을 사섭법 중의 동사섭의 의미를 기본으로 하되, 애어, 이행을 다 아우르며, 세상에 존재하는 유정 무정의 개체가 낱낱이 우주의 주인공이되 낱낱이 서로 평등하게 어울려져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만 존립할 수 있으니 우주 전체가 한 생명체일 수밖에 없다는 일체(一體) 사상을 뜻매김하여 쓰고 있다.

동사집 수련프로그램은 용타스님이 개발한 마음수련 프로그램이다. 칼 로저스의 엔카운터를 씨앗으로하여 1980년부터 수련하여 왔다. 현재는 <살의 5대 원리-정체(正體)·대원(大願)·수심(修心)·화합(和合)·작선(作善)의 원리>를 학습 주제로 하여, 의식의 전개 과정을 일상의 삶 속에서 지인(至人)의 수준으로 나이가도록 이론과 실습의 체계로 수련을 진행하고 있다.

일반과정(5박6일), 중급과정(3박4일), 고급과정(3박4일)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평소에는 홀수 달, 셋째 주 월요일에 개설되어 있다.

홈페이지 : <http://www.dongsasub.org>

연락처 055-962-1070 / 이메일 office@dongsasub.org